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9-12-26

2) 제작자 : 교육지대(주)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
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달는다

사랑은, /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낮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나) 배를 밀어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 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 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뵈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 모두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인
다.
- ② (가), (나) 모두 섬세한 감정을 구체적 경험에 빗대어 주
제를 드러낸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불안정한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
여 여운을 준다.
- ④ (가), (나) 모두 특정 서술형태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분
위기를 전환한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대조적으로 나타낸다.

2. (가)를 읽고 <보기>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석남은 아름답고 섬세한 감성으로 마음의 풍경을 묘
사하는 작품을 주로 발표하였다. 그의 작품은 누구나 가
지고 있는 고독한 마음의 결을 섬세하게 드러내었으며 이
러한 점 때문에 장석남은 미세한 심리적 변화를 포착하여
다양한 상징적 언어를 통해 응축적으로 표현하는 서정파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배를 매며>는 장석남이 발표한 시
집 <왼쪽 가슴 아래쪽에 온 통증>에 수록된 작품으로 운
명처럼 찾아온 사랑의 감정과 그로 인한 설렘을 노래하고
있다.

- ① 화자의 사색을 바탕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나타
낸다.
- ② 사랑이 시작되고 커 가는 과정의 변화를 비유적으로 나
타낸다.
- ③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은 운명처럼 사랑이 찾아오는

과정을 의미한다.

- ④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나타낸다.
- ⑤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찾아오는 주변 요소를 나타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⑦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지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이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둬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한 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⑧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최 씨는 한 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⑨‘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

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 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흠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 ⑩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⑪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의 삽입을 통해 서술 방식의 통일성을 획득한다.
- ②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 ③ 시간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를 드러낸다.
- ④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 ⑤ 설화적 기법으로 마무리하여 독자들에게 여운을 느끼게 한다.

4.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의도이다.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개)

<보기>

죽은 이와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질 때가 있다.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이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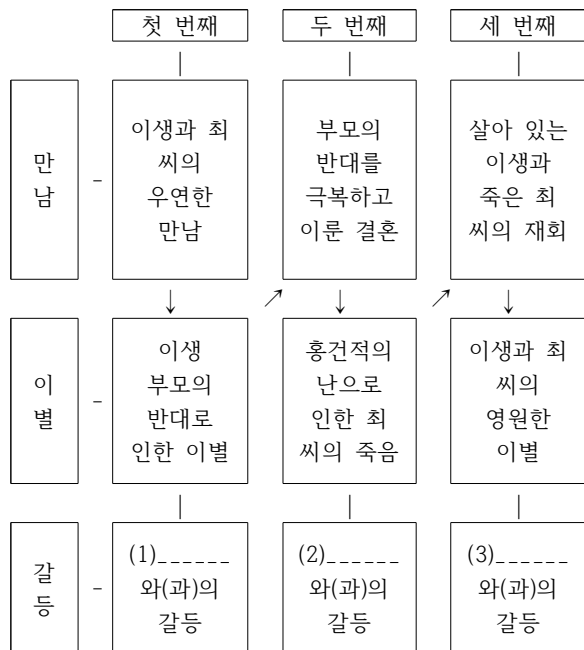
- ①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 ② 이생과 최 씨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 ③ 최 씨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있게 해야겠군.
- ④ 이생이 최 씨의 정체를 알면서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 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 ⑤ 뮤지컬적 요소를 가미해 본문에 삽입된 시는 최 씨가 실제로 노래를 하면서 자신의 현재 심리 상태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면 좋겠어.

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만남과 이별의 반복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② ㉠ : 두문불출(杜門不出)하는 인물의 세계관을 나타낸다.
- ③ ㉠ : 인물의 유교적 도덕규범을 담은 세계관을 보여준다.
- ④ ㉠ : 전기적(傳奇的) 소설의 특징이 나타난다.
- ⑤ ㉠ : 삶의 덧없음을 인식하며 불교적인 무상관이 나타난다.

6. 빈 칸에 들어갈 갈등의 종류를 서술하고, 내용 흐름상 갈등이 반복, 심화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4) 갈등이 반복, 심화되는 이유 : -----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개에 안개 짓고 뒤희희 해 비친다

배떠라 배떠라

밤물은 거의디고 날물이 미러 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강촌 ㉡온갓 고지 먼 비치 더욱 도타

[나] ㉢년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드려라 달드려라

청약립은 씨잇노라 녹사의 가져 오나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무심헌 백구(白鷗)는 내 좃노가 제 좃노가

[다] 슈국의 7올히 드니 고기마다 술져 일다

달드려라 달드려라

만경딩파의 슬7지 용여7자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라] 간밤의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랄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만경류리 뒤희는 천텃옥산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선계7가 불계7가 인간이 아니로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7.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체로 4음보의 율격을 지키고 있다.
- ②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출항에서 정박까지 과정이 여음구에 나타난다.
- ④ 현재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현장감이 살아난다.
- ⑤ 불필요한 여음구의 반복사용으로 인하여 단조롭다.

8. 이 작품을 뮤지컬로 공연을 하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절 감각을 나타내는 무대 배경을 마련해야겠군.
- ②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드러내는 주인공의 독창이 필요하겠군.

- ③ 안개 낀 배경을 통해 어촌 마을의 정취를 보여줘야겠다.
- ④ 탈속적인 분위기를 위한 고요한 배경음악이 필요하겠군.
- ⑤ 배를 띄우거나 노 젓는 장면이 필요한 음향을 준비해야지.

9.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 ② ㉡ :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 ③ ㉢ : 소박하지만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 ④ ㉢ : 자연과 화자가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보여준다.
- ⑤ ㉢ : 선계와 불계는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가 아니다.

10. [다]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둥에 시름이 업스니 어부의 생애이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졌거니 날 가는 줄로 안가. <제1수>
 - 이현보, <어부사(漁父詞)>

- ① [다]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 ② <보기>와 달리 [다]에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고 있다.
- ③ [다]와 <보기>는 모두 넓은 바다에 배를 띄우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다]와 <보기>는 모두 인간 세상보다는 자연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다]와 달리 <보기>는 자신의 한가함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조가 시조의 일반적인 형식상의 특징과 다른 점 두 가지를 서술하십시오.

<보기>

시조의 형식상의 특징은 3(4), 4조의 음수율, 4음보의 음수율, 3장 6구를 기본으로 하며 종장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鄭)나라의 도읍에 벼슬을 하찮게 여기는 선비가 있었는데 ‘북곽 선생(北郭先生)’이라고 하였다. 나이는 마흔 살로, 손수 교열한 책이 일만 권이며, 유교의 아홉 가지 주요 경전의 뜻을 해설하여 다시 일만오천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천자는 그의 절의를 가상하게 여겼으며, 정나라 제후는 그의 명성을 흠모하였다.

또한 도읍 동쪽에 아름다운 젊은 과부가 있었는데 ‘동리자(東里子)’라고 하였다. 천자는 그녀의 절개를 가상하게 여겼으며, 정나라 제후는 그녀의 현숙함을 흠모하여 도읍 주변 사오 리의 땅을 하사하고는 ‘동리(東里)의 과부가 사는 마을의 문’이라는 정려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동리자는 과부로서 정절을 잘 지켰다. 하지만 아들 다섯을 두었으며, 그들은 제각기 다른 성을 지녔다. 하루는 다섯 아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샛별이 빛나는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어쩌면 그리도 북곽 선생과 목소리가 닮았을까!”

하고는, 오 형제가 번갈아 문틈으로 엿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기를,

“선생님의 덕을 오랫동안 흠모하였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니, 북곽 선생이 옷깃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경>을 읊었다.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져 있고
 반짝반짝 반딧불 날아다니는데
 ㉠ 크고 작은 이 가마솔들은
 누구를 모형 삼아 만들었나?

그리고 나서 / “이는 흥(興) 이로다.” / 하였다.

다섯 아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예기(禮記)>에 과부의 집 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라고 했는데, 북곽 선생은 현자가 아니신가.”

“정나라 도읍의 성문이 허물어진 곳에 여우가 굴을 파고 산다더라.”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 이는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게 아닐까?”

하고, 서로 함께 모의하기를,

“여우가 쓰던 모자를 얻은 사람은 그 집에 천금의 부(富)가 굴러 들어오고, 여우가 신던 신발을 얻은 사람은 대낮에도 종적을 감출 수가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은

사람은 흘리기를 잘하여 사람들이 반하게 된다더라. 그러니 어찌 이 여우를 죽여서 나누어 갖지 않으랴!” / 하였다.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에워싸고 공격하니, 복괵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그 속에는 통이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 하였다.

복괵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大人)은 그 가족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誨)라 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중략>

- 박지원, 「호질(虎叱)」

12. ㉠과 표현법이 유사한 것은?

- ① 등 밀쳐 내니 어찌 아닌 명관(名官)인가?
- ② 질세기 앞총은 형겔총하니, 나막신 뒤축이 거멸못이라
- ③ 어 추위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
- ④ 개잘랑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 '반'자 쓰는 양반 나 오신단 말이오.
- ⑤ 시아지비는 뽕중새요 남편 하나는 미련새요 자식 하나는 우는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썩세.

13. ㉡의 시를 삽입한 의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
- ② 비유를 통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강화한다.
- ③ 인물의 내재된 욕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④ 말장난과 희롱을 통해 인물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 ⑤ 상황을 마무리하고 새 사건의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

14. 동리자의 아들이 '복괵 선생'을 '여우'로 판단한 근거를 서술하시오.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얼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 이곡 「차마설」

15. ㉡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설득력을 높인다.
- ②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현학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설의법을 사용하여 결론에 대하여 강한 여운을 남긴다.
- ④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하여 자기주장을 돋보이려고 한다.
- ⑤ 자신의 의견과 비교하여 바른 판단을 이끌어 내고 있다.

16. 이글의 필자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깨우침이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2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완성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스물여섯 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㉞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음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電車課)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㉞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찍음쇼 -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㉞대정(大正) 12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위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이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해 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중략>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이래 일 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시의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㉞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그는 결코 대답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여자의 옆얼굴을 결눈질하였다. ㉞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결눈질한 남자의 꼴을 결눈으로 느꼈을 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알은체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체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 보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7.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서술함으로써 장면의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독백 위주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서술로 서정적인 분위기

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주인공의 발걸음을 따라 공간을 이동해 가는 여로형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잦은 삽표의 사용으로 주인공의 정돈되지 않은 생각과 섬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주인공이 보고 들은 사건보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18.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 새로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따라 서술되는 공간이다.
- ② ㉡ : 경성 시내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구보의 모습을 암시해 주고 있다.
- ③ ㉢ :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을 드러내 주는 소재이다.
- ④ ㉣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의 시점에 동화되어 서술하고 있다.
- ⑤ ㉤ : 소심하고 내성적인 구보의 성격을 간접적인 제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19. <보기>를 토대로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30년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당시 경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도시 문명의 영향 아래 탄생하게 된다. 1930년대의 경성은 식민지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보여준다. 당시의 경성은 도시 문명이 자리 잡으면서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었지만, 지식인들은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 ① '전차'는 근대화 되어가고 있는 경성 시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재이군.
- ② 구보가 하루 동안 배회하는 경성시내는 도시 문명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군.
- ③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는 구보는 당시 지식인의 무력감을 드러내는 인물이군.
- ④ 구보를 보고도 아는 체 하지 않는 '여자'는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비인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⑤ 뚜렷한 목적지가 없이 전차를 타고 가고 있는 구보의 모습은 목적을 상실한 지식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군.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 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
어내려 저마다 명드는 소리 명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
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를 햇볕 발 디디는 소리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체머리 떠는 소리 땀돌 속에서 껍
질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사그락사그락 고운 뺨가
루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 주는 소리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
끼리 다시 영기는 소리 식어 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훑아
주는 소리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 모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
요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 김선우, 「단단한 고요」

20. 위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드러나 있다.
- ② 은연중에 사회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의 전형적 이미지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시의 대상에게서 시적 화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에 대한 창조적이고 개성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다.

21. 위 글의 표현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마지막 연은 도치를 통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청각적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시키고 있다.

22. 위 시의 시적대상인 '도토리묵'에 대하여 ㉠과 같이 생각하게 된 이유를 서술하시오.

- (1) '시끄럽다.'고 한 이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 '단단하다.'고 한 이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영수, 영호, 영희 남매의 가족은 무허가 판자촌에 집을 짓고 산다. 수도 배관공인 아버지는 키가 작아 주변 사람들에게 '난장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집은 늘 가난하다. 영수와 영희는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집안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아파트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영수네 집은 철거될 위기에 처한다.

㉔ 영희의 작업 공장(새벽)

㉔새벽 3시를 가리키는 시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들. 기계를 만지는 직공들의 분주한 손길. 기계에서는 열기가 뿜어 나오고 엄청난 소음이 귀를 괴롭힌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기계음에 섞여 웅웅 댕다. 영희, 깜박깜박 졸고 있다. 조장, 공장 안을 이리저리 다니며 졸고 있는 여공들의 팔을 옷핀으로 찌른다. 졸고 있던 영희도 옷핀에 찢린다. ㉔(클로즈업) ㉔영희의 작업복 팔 부분에 한 점 빨간 피가 묻어난다.

영희 : (깜짝 놀라 팔을 움켜쥐며) 아야

조장 : (양칼진 목소리로) 정신 차려. 정신! 기계가 멈추면 공장이 손해고, 공장이 멈추면 우리가 다 손해야! 정신 차려, 정신!

영희, 호주머니에서 잠 깨는 약을 꺼내 꿀꺽 삼킨다. 옆에 있던 파마 아줌마가 영희에게 다가간다.

파마 아줌마 : 영희야!

영희 : (못 듣고)

파마 아줌마 : (어깨를 툭 치며) 야, 김영희!

영희 :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왜요, 아줌마.

파마 아줌마 : 아유. 살살 말해. 너 이러다 시집 못 간다. (영희의 손에 들린 약을 가리키며) 야. 나도 저 독한 조장한테 옷핀에 찢리기 전에 하나 줘라. 졸려서 돌아가 시겠다.

잠 깨는 약을 동료 아줌마에게 주는 영희.

㉔ 17 난장이네 집(아침)

콩나물을 다듬고 있던 어머니. 집 걱정엔 콩나물 다듬기를 멈추고 한숨을 쉰다. 영희,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오다가 망연자실해 있는 어머니를 본다.

영희 : (짐짓 밝은 목소리로) 엄마!

어머니 : (기운 없이) 어, 이제 오냐?

영희 : (어머니 표정을 보며).....?

난장이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고, 어머니와 영수는 마루에 앉아 있다. 영희는 그 옆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고, 영호는 샌드백을 툭툭 건드리고 있다.

영호 : 에휴, 미련 없이 뜨는 거야. 미련 없이. ㉔행복동? 이름부터가 웃겼다고.

영희 : (영호를 보며) 여기가 우리 집인데 가진 어딜 가. 그리고 갈 데도 없잖아.

어머니 : 선거철만 되면 시커먼 양복들 짝 빼입고 와서는, 허가 내준다고, 정식 허가 내준다고, 어쩔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일들을 쉽게 그러는지..... 아이구, 참.....

어머니의 뒤편으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난장이의 모습이 보인다. 영수의 얼굴 역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영호 : (영수에게 다가와 빈정대는 말투로) 아유, 이런 댕 책에선 뭐라 그러냐?

영수 : (영호를 보며)

영호 : 형, 뭐라고 말 좀 해 보슈.

답답한 마음에 영호와 영수를 바라보는 영희.

영호 : 책 속에 해답이 다 있는 거라며?

영수 : (영호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며) 취직자린, 알아보고 있는 거야?

영호 : (버럭 소리를 지르며) 걱정 마. 형보다 돈 많이 벌어 올 테니까!

어머니 : 목소리들 낮춰. 아버지 앞이다.

난장이 :

어머니의 다그침을 듣고 탄성을 피우는 영호.

영수 : 죄송해요.

어머니 : (평상에서 내려와 난장이 앞에 쏘그려 앉으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난장이, 아무 말 없이 공구를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
선다. 가족들, 안쓰러운 표정으로 난장이를 바라본다.

영호 : (신경질적으로 샌드백을 치며) 아유. 대책 없어,
대책 없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늘을 바라보며 씩씩한 표정을 짓는 영희.

영호 : 가족회의는 무슨 얼어 죽을.

영희가 집 앞으로 걸어 나온다. 집 앞의 건물은 이미
헐려서 빈터만 남았다. 동네 전체가 공사판이고 흙무더기
이다. 걸어가던 영희 눈에 쓰러진 꽃이 보인다. ㉠꽃을
다시 세워 땅에 묻으며 주변 풍경을 둘러본다.

- 조세희(원), 박진숙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23.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70년대 경제개발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농촌
의 파폐, 부의 편재 등의 문제를 양산하면서 국가 경제는
광목할만한 외형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룩하였다. 무엇
보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도시가 주는 경제적, 교육
적, 문화적 기회에 이끌려 농어촌 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이주했고, 도시화된 산업사회의 생존경쟁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불만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

- ① 아버지를 ‘난장이’로 설정한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
된 계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군.
- ②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군.
- ③ ‘영수’는 도시화에 떠밀리는 판자촌에 살며 가족의 어두
운 현실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군.
- ④ ‘영호’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나 가족의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군.
- ⑤ ‘영희’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밝고 긍정적인 모습
으로 생활하고 있군.

24. ㉠ ~ ㉢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은?

- ① ㉠ : 1970년대의 노동 환경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 : 화면 겹치기로 등장인물의 현재 상황을 환상적 기
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③ ㉢ :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 ④ ㉣ : 반어적 표현을 통하여 가족의 처지를 더욱 비극적
으로 그리고 있다.
- ⑤ ㉤ :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모리

“이내 설움 들어 보라. ㉠나는 부모 일찍 조실(早失)하
고 일가 친척 바이 없어 혈혈단신(孑孓單身) 이내 몸이
이성지합(二姓之合) 우리 아내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조출하야 종가대사(宗家大事) 탁신안정(托身安定) 떠날 뜻
이 바이 없어 철 가는 줄 모를 적에. 불화병 외는 소리
‘위국 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외는 소리 나를
끌어내니 아니올 수 있든가. 군복 입고 전립(戰笠) 쓰고
창을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아내 내 거동을 보더니 버선
발로 우루루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엎드리며, ‘날 죽이고
가요.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이팔홍안 젊은 년을 나 혼
자만 떼어놓고 전장을 가라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
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랴 제 ‘허허 마누라 우지 마오.’
장부가 세상을 태어나서 전장출세(戰場出世)를 못하고 죽
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우지 말라면 우지 마오.
달래어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더구나. 잡았던 손
길을 에후리쳐 떨치고 전장을 나왔으나. 일부지전장 불식
이라. 살아가기 꾀를 낸들 동서남북으로 수직(守直)을 허
니, 함정에 든 범이 되고 그물에 걸린 내가 고기로구나.
어느 때난 고국을 갈지, 무주공산 해골이 될지, 생사가
조석이라. 어서 수이 고향을 가서 그림던 마누라 손길을
부여잡고 만단정회 풀어 볼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
야.”

아니리

이렇듯이 설리 우니, ㉡또 한 군사 나오난디, 그중에
키 작고 머리 크고 작도만한 칼을 내두르며 만군중이 송
신하게 말을 허겼다.

중중모리

“이놈 저놈, 말 듣거라. 너희 올 제 좀놈일다. 위국자
(爲國者)는 불고가(不顧家)라 옛글에도 일러 있고, 남아하

- 작자미상 「적벽가」



정답

- 1) ②
- 2) ④
- 3) ⑤
- 4) ①, ②, ③
- 5) ②
- 6) (1) 인물과 사회 (2) 인물과 사회 (3) 인물과 운명
(4)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7) ⑤
- 8) ②
- 9) ⑤
- 10) ⑤
- 11)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에 여음구가 있다.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을 지키는 규칙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다.
- 12) ④
- 13) ③
- 14) 고매한 인품을 지닌 복곽 선생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15) ①
- 16)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 17) ②
- 18) ②
- 19) ④
- 20) ⑤
- 21) ⑤
- 22) (1)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러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2)도토리묵 한 모에는 여러 소리들이 모여서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 23) ④
- 24) ②
- 25) ②
- 26) (1) 고향에 가서 그리운 아내를 만나는 것이다.

(2) 적장수의 머리를 베고 승전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